

사회적경제 인식, 어디까지 왔나

2020년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들은 10명중 7.3명(73.3%)이 사회적경제를 알고있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건을 사본 사람도 58%가 넘는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체감은 낮는데, 그답을 '같이살림프로젝트'에서 찾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이 높고 동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알고있다.

73.3%



지역의 필요와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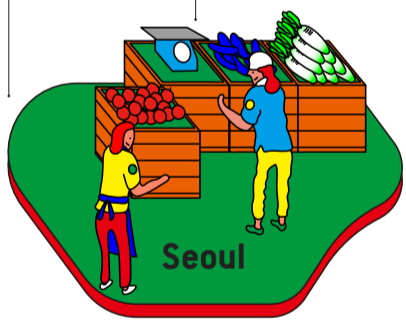
6천 명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해결해야 하는 지역문제(소득 및 주거) > 노동 불안정 > 삶의 질 저하 > 환경오염을 꼽았고, 1천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각도 시민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2020년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교육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아 시민들의 고민에 조금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에는 3,900개의 협동조합, 3만 8천명의 조합원이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위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4대 과제인 협동조합의 성장기반강화, 특화모델육성, 사회적가치 확산,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에 협동의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이다.

협동조합 3,900개 조합원 38,000명



가치있는 기업 가려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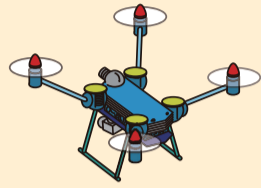
매출액이 높은 기업만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 당시 정했던 미션을 고집있게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의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협력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민주적으로 내부운명을 잘 하는지 체크한다. 이것이 서울형 사회적가치지표이며, 50개의 기업에 시범조사를 해보니 평균 70.4점을 기록하였다.

서울형 사회적가치지표 (50개 기업 평균) 70.4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뒤집는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

아무튼, 구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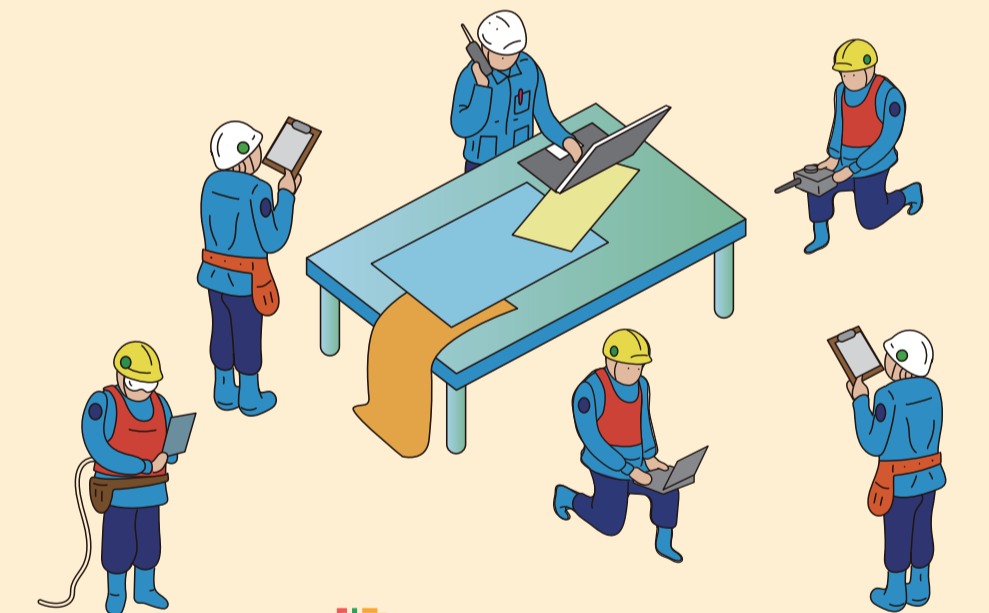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삶의 방식에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되는 시기, 서울 사회적경제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방안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모두의 안전망으로 바꾸는 서울 사회적경제의 행보에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세상을 뒤집는 답은 시민과 함께 사회적경제가 "아무튼, 구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의견수렴 기간 202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사회적경제에서 시민경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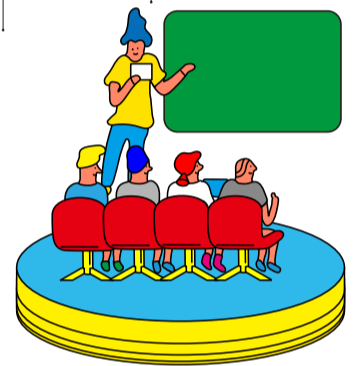
기업지원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아닌 시민들이 모두 주체적인 단단한 풀뿌리가 되어 관계를 맺고 시장을 형성하는 시민경제로 확장해 보는 것을 모색해 보았다. 이제는 준비되었다. 더 많은 시민이 모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서울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시민과 사회적 기업가의 만남

일상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시민 8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였고, 4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응답하였다. 시민들은 환경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기업은 '다화용기'와 '생분해용기' 사용 캠페인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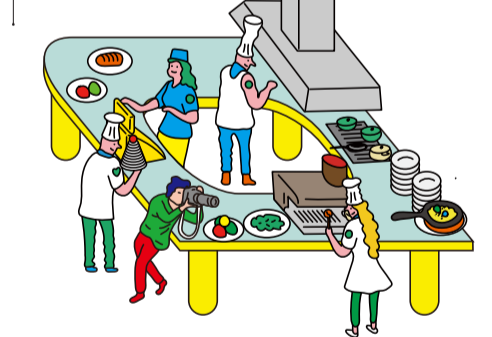
시민 참여 80여명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4개



마을기업의 성과와 미래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은 96개로 이들은 총 매출 192억, 일자리 1200여개를 창출해 왔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마을지역을 복원하였고,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의 고유가치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주민생활문제해결, 공공정책 연계, 지역관리 사업을 마을기업이 주도적으로 펼칠 것이다.

서울시 소재마을 기업 96개



자치구 연대포럼

서울의 25개의 자치구에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지원조직 있다. 이들 스스로 연대모임을 조직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번의 모임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 도시 서울에서 없어서는 안될 자치구 지원조직이 제안한 것은 연대전략, 규모화 확장전략,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과기준수립의 공동전략이다. 이러한 방향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모임 11회

서울시 거버넌스

선진국의 사례처럼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민관정책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투자, 소상공인, 업종별, 중간지원조직, 청년, 학계, 서울시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되어 월간 정례회의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로써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삶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구분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구자는 '사회 생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예로 일자리와 소득을 위해 '고용보장제', '참여소득제'를 제시하였으며, 나와 우리의 좋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사회연대경제'와의 결합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사회 생태' 변화가 필요!

